계사년 불교 소사

453년 운강석굴 조성
1233년 대장경 판각 시작
1893년 시카고 만국불교대회

393년 | 372년, 전진의 순도에 의해 고구려에 불상과 경문이 최초로 전해졌다. 371년 왕위에 오른뒤 율령 반포 등 국가기반을 다지전 소수림왕은 불교를 통치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375년 삼국 최초의 사찰인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가 건립됐으며 393년에는 평양에 9개 사찰이 창건됐다.

453년 | 막고굴, 용문석굴과 함께 중국 3대석굴로 불리는 운강석굴 조성이 시작했다. 494년에 완성된 석굴들은 동서로 1km가 이어진다. 주요동굴 45개에 감실 252개로 석조조상이 5만 1000여구가 있다. 당시는 구나발타라(求那跋陀羅 394~468) 등 역경승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다.

513년 | 백제에서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일본에 보내 역경을 포함한 오경(五經)을 처음으로 일본에 전했다.

573년 | 위진남북조시대 왕실 귀족들의 지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불교가 2차 법난을 겪은 해이다.

633년 | 백제 담화(曇和) 선사에 의해 연암산(燕岩山) 기슭에 천장암(天藏庵)이 창건됐다.

693년 | 〈삼국유사〉에 신라 국선(國仙)인 부례랑이 북명(北溟, 지금 북한의 원산만)에서 말갈족에게 붙잡혔는데 월성(月城)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고 있던 만파신적과 현금(玄琴)을 뺐겼다. 부례랑의 양친이 백률사에서 백일간 기도하자 향탁에 나타났고 전해진다.

753년 | 신라 경덕왕이 여름 가뭄으로 태현(太賢) 스님을 궁중으로 불러 기우(祈雨)를 하도록 했다. 태현 스님은 〈금광명경〉을 강설했는데 한국불교 최초의 기록이다.

813년 | 813년에 당나라에서 〈구화산 화성사기〉가 쓰여졌다. 〈구화산 화성사기〉에는 지장 스님의 활동을 상세히 다뤘다.

873년 | 〈삼국사기〉에 의하면 경문왕 13년인 873년 9월 기울어진 황룡사 9층탑의 개조가 완료됐다. 당시 황룡사 9층탑 높이는 22장(약 66m)였다고 한다.

1113년 | 캄보디아 앙코르왕조가 크메르(Khmer) 왕국을 세워 앙코르 와트를 건립한 해이다.

1233년 | 1233년은 대몽항쟁기로 전란의 와중에 대장경 조성사업이 시작된 해이다. 팔만대장경 판각을 고종 38년(1251년)을 기점으로 16년 전인 고종 23년(1236년) 시작했다는 설이 있으나 학계에서는 대장경판 권말의 경판 간행기록의 마지막인 1248년에서부터 16년을 역산해 1233년 조성사업이 시작된 해로 보고 있다. 1233년에는 몽고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화 외성 축조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1413년 | 불교를 배척하던 태종이 즉위 13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에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한 수륙재를 열고 향과 제교서(祭敎書)를 내렸으며, 수륙재위전(水陸齋位田) 100결을 하사하여 재를 계속하게 했다.

1473년 | 조선 세조 이후 성종이 즉위하자 척불정책이 본격화됐다. 1471년에는 도성안 염불소 등이 폐지됐으며 1473년에는 사대부 부녀자의 출가가 국법으로 금해진다. 성종의 정책은 다음 왕인 연산군 때도 이어져 선종 도회소 인 층천사, 교종 도회소인 흥덕사, 대각원사 등 삼각산 모든 절이 폐사됐으며 승려들은 관노가 됐다.

1593년 | 1593년은 임진왜란이 진행되고 있던 해로 전국 각지에서 의승병들이 일어났다. 의승군은 평양성 탈환에 크게 기여했으며 선조는 유정 스님의 승군의 전공을 높이사 선교종 판사를 제수했으며 적을 죽인 승려에게 선과를 제수해 표창하는 뜻을 보였다. 임진왜란으로 불국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소실됐다.

1653년 | 명청 교체기로 청나라 순치제가 티벳과 화친하기 위해 달라이라마 5세를 북경으로 초청했다. 달라이라마는 5000 수행원을 거느리고 북경에 도착해 당시 청나라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민심을 얻게 한다.

1713년 | 여수 향일암이 마을 주민들의 필탑 헌공으로 본격화돼 2년 뒤인 1715년 중수된다.

1773년 | 청나라 건륭제가 한문대장경을 만주글자로 번역하는 사업을 시작해 18년 만에 완성한 해이다. 당시 대장경의 간행은 만주글자의 보급이 아닌 왕권강화의 목적이 더 컸다.

1833년 |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에 자장율사가 초암을 지었던 자리에 중창된 평창 월정사가 대형 화재로 인해 모두 불탔다.

1893년 | 조선왕실에서 고려시대 행해지던 연등회가 재연됐다. 이와 함께 1893년 시카고 만국불교대회는 동양의 선(禪)이 미국에 처음 전파된 해였다. 일본 임제종의 샤쿠 소우엔(釋宗演, 1859~1919) 스님과 그의 제자들이 선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스즈키 다이세쓰, 소케이안, 순류 스즈키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53년 | 1953년은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해였다. 불교계는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사찰들이 소실되고 철거됐다. 1953년 불교계에서는 정화운동의 씨앗이 싹튼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25차 국무회의에서 사찰농지반환을 지시하고 토지개력으로 전국사찰 소유의 토지가 반환됐다. 1953년 4월 경주 불국사에서 법규위가 개최되고 비구 수도도량이 18개가 지정됐는데 31개 본산은 전부 제외됐다. 이에 비구승들이 분개해 교단 쇄신을 결의하게 된다. 이에 5월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을 보호·유지하라는 담화를 발표한다. 이 해에는 각 종단이 활발히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심인불교(心印佛敎)가 8월 대한불교진각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종단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 4월에는 조선불교선리참구원도 선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뱀띠 사부대중의 서원

지난 한해 불교계는 승풍실추와 힐링 열풍으로 극락과 지옥을 오갔다. 올해 계사년(癸巳年) '흑사의 해'는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뱀띠 불교인사들의 한 해 서원을 들어봤다. 신중일 기자

"종단 쇄신 완성위해 최선 다할 터"

조계종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

"내년에는 33대 집행부의 자성과 쇄신 결사와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해야할 시기입니다. 34대 총무원장 선거도 있습니다. 종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965년 을사년(乙巳年) 생인 갓바위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은 신년을 맞는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덕문 스님은 총무원장 종책특보,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만큼 총무원 주요 사업을 이상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개인적인 서원 역시 종단 직영사찰인 선본사의 발전에 있었다. 스님은 "종단에서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재정 투명화 였다"며 "선본사의 사찰 운영위원회가 여법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로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원로의원 스님들을 잘 시봉해 종단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이것만 실천하면 올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통합을 주문했다.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덕문 스님은 "대통령 당선 후에는 여야와 세대가 나눠 반목한다. 이를 통합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이라며 "전통문화에 대해는 문화적, 종교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자들에게 당부하는 경구로는 '조고각하(照顧脚下)'를 꼽았다.

스님은 "자신의 본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행복은 저절로 생겨난다"며 "또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마음으로 산다면 언제나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행과 학문에 깊이 천착하겠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계환 스님은 1953년생으로 올해 꼭 환갑을 맞는다. 하지만 신년을 맞는 소감은 담담했다.

"이전에 환갑은 잘 살던 못 살던 살아있었다는 의미로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변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스님은 올 한해 서원으로 수행과 학문을 꼽았다. 출가자로서 '수행'과 학자로서의 '연구'라는 기본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다.

"출가한지는 꼬박 40년이 넘지만 활동하면서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것은 많이 후회가 됩니다. 또한 현재 동국대 학교 평가 순위가 13위인데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 학교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힐링 열풍으로 불교계의 주목되는 상황에서 계환 스님은 올해 불교가 신비주의를 벗고 대중 속으로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불교가 가지는 장점은 많습니다. 대중들도 이를 알 수 있게끔 불교가 대사회적인 부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불교가 어렵하고 합니다. 내년 불교계가 신비주의를 벗고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는 〈유마경〉의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경구를 한해 가지고 갈 화두로 꼽았다.

"현대사회는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불자들과 국민들 모두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 공감대 만들 수 있는 세상 되길

신재순 정토회 자원활동가

정토회 자원활동가로 활동 중인 신재순 씨는 지난 한해를 뜻 깊게 보냈다. 정토회 백일출가 2기생으로 처음 불교를 공부하고 정토불교대 경전반 과정을 공부하며 아집과 법집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신심 높은 불자지만 신 씨는 2013년도 삶의 키워드는 '여유'로 정했다. 지난해 바쁜 한해를 보낸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싶어서다.

"2012년은 정토회 100일 출가자 법회를 이끌며 바쁘게 산 한 해였습니다. 주마간산처럼 한 해가 지나갔죠. 그래서 올 한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읽고 싶어서 사두었던 책들도 읽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면서 제 삶의 재충전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신 씨의 올해 소원은 결혼이다.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은 그가 평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올해에는 꼭 장가를 가고 싶네요. 이젠 저도 인생에서 함께 하고픈 인연을 만났으면 합니다. 사실 불교공부를 한 동기도 제 자신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돼야 누구를 만나든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올해 불자들이 생각해봐야 할 경구에 대해서는 법성게의 첫 구절인 '法性圓融無二相'이었다. 저마다의 인연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 서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지역, 세대, 계층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에 함께 할 수 있고 조화로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공감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교적 가정관리' 연구 발원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환갑을 맞는 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이제는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죠. 맡고 있는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만큼 이제는 여유를 좀 가져보려 합니다."

김외숙 한국방송통신대 가정관리학과 교수는 계사년 신년을 맞는 소감에 대해 이 같이 술회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사)지혜로운여성 이사로도 활동 중인 김 교수는 올해에는 집필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방통대 교수로서 관련 교재를 주로 썼지만 최근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재도 집필 중입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가정관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해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올해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이 갈등의 시대에 더욱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힌 김 교수는 첫 여성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기대를 표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당시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보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모두를 포용합니다. 박 당선인도 이런 모성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박 당선인이 공약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불자들이 한해 동안 반추해야 할 부처님 말씀으로는 '자타불이(自他不二)'와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소개했다. 갈등의 시대, 남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佛紀 2557年 癸巳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 합동천도재
설, 추석, 백중 합동 제사
■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051)803-7573 / 전송 051)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도갑사
주지 설도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전화 061)473-5122
홈페이지 www.dogapsa.org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